

투데이 칼럼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

갈 수록 북한의 노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9월 세계 현대판 노예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인권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노예 노동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사회는 표적 제재를 통해 개선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은 유엔 인권 기구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심각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 압박을 촉구했다. 미국의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C)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 규모,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통치하에서 이러한 인권 침해의 규모와 범위는 계속해서 악화·심화하고 있다"며 정치범 등 구금 시설 내 수감자들에 대한 노예 노동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북한 구금 시설 내 현대적 형태의 노예 제도는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다. 이러한 시설에서 정치범을 포함한 수감자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위험한 환경의 광업과 농업 현장에 강제로 투입되고 있다. 혹독한



정복규
논설위원

조건에서 안전 장비 없이 벌목 작업에 동원되기도 한다. 강제 노동은 남녀노소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 부상과 질병,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감자들은 최소한의 휴식만 주어진 상태에서 주 7일, 하루 10~12시간 이상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도 만연해 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이 서류상으로는 강제 노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여러 국제 인권 조약에도 비준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구금시설에서 더욱 심하다. 외교 채널을 활용해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정치범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아울러 구금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위성 사

진 분석 등 기술 수단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그 근간이 되는 정책, 제도, 불처벌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노예화, 고문, 성범죄 및 젠더 기반 범죄, 종교, 계급, 성별,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 등 반인도적 범죄를 벌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노예 노동은 세계 여러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무기 생산과 확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무력 증강을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노예 노동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조사한 적이 없다. 인권 관련 회의에서도 제기된 적이 없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군대와 치안 세력, 광업 및 경공업과 연결된 그들의 국제 공급망,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반인도 범죄

사이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북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해야 한다. 오보코타 토모야 유엔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오는 9월 개막하는 57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전 세계 현대판 노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 기구와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는 강제 노동과 어린이 노동, 인신매매, 노예 등 신분의 대물림, 강제 결혼 피해자 등이다. 유엔은 특히 피해자들이 대개 협박과 폭력, 기만, 권력 남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요로 거부할 수 없거나 벗어날 수 없는 착취 상황에 직면한다고 지적한다. 호주가 지난해 발표한 '2023 세계 노예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구 1천 명 당 현대판 노예가 104.6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현대판 노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갈수록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극심하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된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최악이다. 반인륜적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사설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이 절실하다.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티는 고액 체납자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막상 수색해보면 곳곳에서 돈과 귀금속이 나오고 있다. 올해도 6백 명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추적이 시급하다. 그러나 세금 낼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체납자를 설득해 수색에 들어가니 옷장, 금고, 서랍 등 곳곳에서 돈더발이 나온다. 손지갑과 작은 상자에는 크고 작은 골드바가 들어 있다. 귀금속까지 포함하면 3억 원대에 달하는 곳도 있다. 국세청은 자택 수색을 통해 모두 5억 원의 체납 세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최근엔 학교 운영권을 넘긴 뒤 사례금을 받고도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 집을 찾아냈다. 그는 딸 명의로 빌린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추적을 피했다. 그러나 2억 원 상당 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이 출몰이 나왔다. 국세청이 새로 재산 추적에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는 641명이다. 작년 상반기보다 80여 명 늘었다. 고가의 미술품 등 신종 투자 상품에 재산을 숨긴 41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매 내역이 등기부 등 공적기록으로 남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올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직접 매각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현재 가상자산 11억 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했다.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도 확보했다. 숨긴 재산 추적을 통해 지난 해 역대 최대인 2조8천억 원을 확보한 국세청은 올해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발본색원(拔本塞源) 작업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대한노인회 한복 맵시 대회

갈수록 한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1회 대한노인회 한복맵시대회'가 5월 10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이번 처음으로 열린 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와 인터내셔널 슈퍼핀 모델협회가 주관했다. 특히 대회는 시니어부(65세 이상)와 일반부(19세~65세 미만)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노년층의 문화 예술 활동 확대와 한민족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시니어들의 문화적 성장과 세대 간 교류, 소통, 멘토링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건강한 삶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 기준은 의상 표현과 개성, 한복의 어울림과 자태, 건강과 품위, 예절, 표정 등 용모를 비롯해 태도와 자기소개, 워킹 및 포즈, 관객 호응도 등에 따라 선별했다. 앞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출전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OT) 및 리허설을 했다. 수상자에게는 부상과 대한노인회 한복 홍보대사와 차기 대회 심사위원, 각종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전통 한복을 각자 개성에 맞추어 아름다운 한복을 뽐내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과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한복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열렸다. 참가자들은 한복의 아름다운 자태와 맵시를 유감없이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KBS와 글로벌경제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아름답고 건강한 어르신들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기 바란다. 한복의 세계화와 대중화로 문화 외교에도 나설 것을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키이우서 우크라이나군 포로 석방 촉구 집회 열려



지난 23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독립광장에서 포로들의 가족과 활동가들이 전쟁 중 러시아에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각종 손팻말을 들고 있다.

'팔레스타인 해방' 외치는 UCLA 시위대



지난 23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UCLA) 캠퍼스 내 강당 앞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모여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